

목양 칼럼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번 선교는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선교였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예상치 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기뻐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의료사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료, 안경, 치과사역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미 석 달 전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주지사의 싸인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세 번의 선교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사역할 현지 보건소 의료팀 중 좀 세력이 있는 한 명이 필리핀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은 어떤 의료행위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도, 심지어 주지사까지도 그의 주장을 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사역은 그들만 하고 우리는 구원사역과 선물사역을 할 수 있어서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와 슬리퍼 등 준비한 선물이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세례식도 은혜가운데 베풀 수 있었습니다.

선교 첫 날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완강하게 의료사역 전체를 반대하다가 치과사역은 스케일링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교도소 재소자들과 직원들의 치아를 돌봐 줄 수 있었습니다. 안경사역도 리딩 글라스는 현지 검안과의 함께 필요한 도수에 따라 나눠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의료사역 전체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았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박인호 선교사님 내외분과 현지 스텝들도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성경의 사도행전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첫째, 길이 막히면 열리는 쪽으로 힘을 쏟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사역을 못하게 될 때 우리 팀 전체가 함께 구원사역, VBS사역, 선물사역에 힘을 더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의료사역에 집중하다 유스그룹이 하는 VBS를 보지도 못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함께 격려함으로써 유년부, 유스그룹, CCM, 장년들이 전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둘째, 시간적 여유가 생기므로 현지 찬양팀과 우리 CCM/YG가 함께 찬양하고 연주하는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지 찬양팀들은 찬양 수준도 뛰어나고 열정도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박인호 선교사님이 장학사역을 통해 길러낸 리더들이었습니다. 장학사역을 통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70명이 넘고 그 중에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시험에 통과하여 교사 자격증을 받아 현지 교사로 일하는 사람은 40명이 넘습니다. 그 밖에 은행이나 관공서에 취직한 사람들도 다수입니다. 이들은 지금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헌신된 사역자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팔라야 지역에서는 교인들이 살고 있는 열악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구원사역과 선물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의 사역, 전쟁 직후의 한국의 모습' 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옛날에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했던 사역을 우리가 필리핀에 와서 하고 있다는 예상치 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우리가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세 번에 걸쳐서 보낸 선교물품 35박스 가 하나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역의 마비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간 물품과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만으로도 선교는 훌륭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않은 사역에 대한 제재, 도착하지 않은 선교물품, 쉽게 지치기 쉬운 무더운 날씨와 습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고 계셨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쉬면서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침 QT와 저녁 저널을 충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큰 은혜를 체험한 선교였습니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본당
	2부 예배	오전 9:30	본당
	3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영어(CCM) 예배	오전 11:00	CC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CCM 청년부 모임	오후 7:30 (금요일)	예일 카페	
영어 아침 기도회	오전 7:30 (매월 첫째 토요일)	CCM 예배실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Y

VISION 2024 HEALING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치유와 회복공동체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제 32권 28호 주후 2024년 7월 14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민목사	홍정자목사	백에스라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40장		
기도	박진두집사	김용호장로	박성우장로
성경봉독	요(Jn.) 21:15-17		시(Ps.) 37:23-26
찬양	글로리아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세준목사		인도자되시는 하나님 백에스라목사
찬송	383장		
봉헌	다같이		
봉헌찬송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오세준목사	백에스라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7월 17일 오후 8:30

- 기도: 김현주권사
- 말씀: 우영주목사
- 다음주 기도: 정수미란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이태호집사
- 2부: 김근태장로
- 3부: 정수영장로

7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박민애권사
- 3부: 최훈집사, 김신애권사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담임목사 동정:** 일본노회 방문 7/15(월) - 7/18(목)
- **7월 목장예배:** 필리핀 선교로 한 주 연기 - 7/26 (금), 목장별로
- **노량진교회 고등부 비전트립팀 민박 신청:** 백에스라 목사 & 김동환 장로
- **필리핀 단기선교 - 7월 8일(월) - 7월 15일(월)**
- **2024 예일 여름학교:** 7월 8일(월) - 8월 16일(금), 평일 오전 9시 - 오후 3시
- **강단꽃 장식:** 전용수장로&전미경권사(아들 사무엘 생일) 강수형장로&이유화권사(생일)
사랑의 식탁: 전용수장로&전미경권사(아들 사무엘 생일) 강수형장로&이유화권사(생일)
 김송기전도사(남편 생일) 김신애권사(남편 생일)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한기하장로 다음주: 김준택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5마을 다음주: 6마을
- **7월 헌금위원**
 - 1부예배: 김희순권사 현정원권사 2부예배: 한진영권사 구본원권사 김주양집사 백진아집사
 - 3부예배: 김경미권사 강희선집사 박미선집사 박정혜집사 양순희집사 이유정집사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9:30am & 11am Services. Zoom QR Code:



담장을 넘는 교회(요 20:19-23)

담장 안에 있는 교회가 있고, 담장을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장 안에 있는 교회는 고인 물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썩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고 담장을 넘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새겨봅니다.

1.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19절).
 두려움의 반대가 평강입니다.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승리의 주님을 보며 기뻐합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옵니다. 이기심이 사라지고 이웃 사랑이 생깁니다.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마 18:20).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에 눈물이 나옵니다. 입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야 선교가 삽니다.
2.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21절).
 선교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요 3:16). 선교는 자기의 특권을 비우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번에 약 30시간에 걸쳐서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덥고 습합니다. 땀기 모기도 극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해답이 생깁니다.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함께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마 28:18-20).
3. 성령을 받으라(22절).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증기 기관차의 쇠덩어리 차체를 움직이는 것은 수증기의 힘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성령입니다(겔 37:10; 행 1:8).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님이 주십니다(눅 11:13). 성령충만한 교회가 선교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23절). 이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얻고, 배척하면 정죄를 받습니다(막 16:16). 하나님은 필리핀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말과 섬김으로 전한 복음을 받고 구원얻을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그 곳에 보내십니다. 선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매우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장을 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우동정

- **한국방문** 최병철집사&박복임권사 이정은권사
 장혜원 권사 박건집사

행사예고

- 07/21(주일) 제직회
- 08/07(수) 6선교회 헌신예배

방송설교

- KRB FM 87.7/94.3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